

사설

학생중심의
외대발전 이뤄내자

지난 25일(목) 양배움터에서는 내년을 책임질 총학생회가 선출됐다. 총학생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올해가 지난 6년간의 관선이사체제를 극복하고 학내구성원들이 그렇게도 소원했던 민주적인 공명제도를 구성해낸 역사적인 해라고 한다면, 내년 2005년은 우리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해이기 때문이다. 앞서, 사실을 통해 당선될 대표자는 '난순한 사회자가 아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다시 한번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하다. 이제 양배움터 학생 대표자들은 '학생중심의 외대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 관선이사체제로 인해 대학운영이 완결되지 않을 당시, '공명제단전설'이라는 상을 가장 먼저 제시한 것도 학생이었다. 공명제단을 이뤄낸 지금 또 한번의 고민의 결실이나이 할 때마다.

그러나 그전에 학생중심의 외대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먼저는 고민은 한 개인의 고민보다 여러 사람의 고민이 모아질 때 더욱 완벽해지고 공고해진다. 이번 선거는 양배움터 모두 경선으로 치러졌다. 선거기간동안 서로의 공약에 대해 비판하고 답변하면서 검증하는 과정도 있었으며 또한 서로의 공약을 수용하는 모습도 종종 비춰졌었다. 이는 가히 환영할만한 점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물론, 총학생회는 당선자들이 꾸려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껏 논쟁했던 후보들이 모두 함께 하는 총학생회가 됐으면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학생중심의 외대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낙선한 후보도 잘지나다 '학생'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견고한 것이다.

다음은 각 단체 학생회조직들의 역할이다. 당선된 말이지만 각 단체의 대표들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자력으로 총학생회 운영을 함께 해 나가는 중요한 임무가 맡겨져 있다. 이를 새삼 강조하는 것은 이번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한쪽 선봉을 공개하지하고 나선 단체의 대표자들이 많았다는 데 이유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우려하는 점은 공개되지 이후의 행보이다. 단체학생회장 당선자들은 본인이나 지지했던 총학생회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을지라도 중앙운영위원회의서 이후의 역할에는 최선을 다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 물론,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상실하지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외대발전'을 이뤄내는 데 절과와 이해가 절필함이 되라는 의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역할이다. 앞으로 '학생중심의 외대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학생들이다. 단순히 대표자를 뽑아놓고 '별 대로 되라'는 식의 반응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대표자는 학생들의 지지에 힘을 얻는다.

외·대·만·평

<7>

수 주



<서울배움터> 단체 학생회장 인터뷰

영어대 학생회장 양상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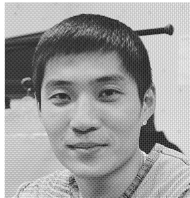
“‘신뢰받는 학생회가 되겠다’ 강의실 유세에서 여러차례 외쳤던 이 말,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이주고 관심 가져주으면 좋겠다.”

20대 영어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양상민(03)군의 각오다. 양 군은 “76학번 때부터 영어학부가 과별 모임을 전환한다. 과에서 학부로, 대학으로 걸음 바꿨지만 커리큘럼의 내용은 그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거쳐 실용적인 분야도 많이 기를 수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양 군은 이어 “지금 영어대는 단점이 잘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영어대 한 바퀴, 또한에는 의견인의 말을 잘 준비해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용인배움터> 단체 학생회장 인터뷰

서유럽학대 학생회장 이재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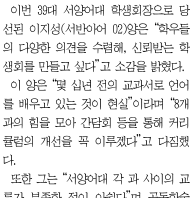
서유럽학대 당선자 이재성(불어 09) 군은 “자녀 중심 프로젝트로 한해를 그려나갈것이다”는 당한 포부로 당선소감을 밝혔다.

내년을 위해 많은 문화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 군은 “서유럽대는 학생의 4분의 1이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동안 영어에서는 가장 뒤떨어졌다.”

문제는 학생회가 단체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대의 공동공진 추진 △동아리연습동 내 사재만의 공간 확보 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군은 “올 해는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의 첫 페이지를 서유럽대가 장식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양어대 학생회장 이지성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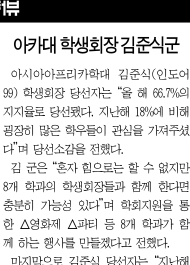


이번 30대 서양어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이지성(서양어 02)은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신뢰받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양은 “‘복 심년 전의 교과서로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과와 힘을 모아 건담과 등을 통해 커리큘럼의 개선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서양어대 각 과 사이의 교류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며 공동학습체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지성양은 “이 행사가 각 과의 소모임 및 학회를 연결해 학생들이 다른 과와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또한 공약으로 내세운 △다채로운 대경간외의 개최 △여학생회 △학우들의 의사를 토대로 함께 생활에 참여하는 학생회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아시아아프리카학대 김준식(인도어 09) 학생회장 당선자는 “올 해 66.7%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지난해 18%에 비해 경향이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 군은 “홍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8개 학과의 학생회장들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학회활동을 통한 △영양학 △스포츠 등 8개 학과가 함께 하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준식 당선자는 “7년째 인도어와 학생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을 살고자 한다. 기존의 단체의 힘을 벗어나 학우들에게 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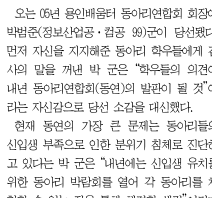
자지구 당선생 인터뷰

서울배움터 동원회장 김은경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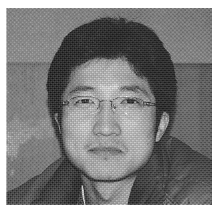
2년동안 공직이던 동아리연합회(동원) 회장에 김은경(서양·노어 03)양이 당선됐다. 김 양은 “국포순례한 활동을 할 때 책임자의 부재로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책임자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동원장에 나오게 된 계기를 밝혔다. 김 양은 현재 동아리들의 문제로 ‘홍보부족으로 인한 신입생들의 부재’를 꼽았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김 양은 “신입생 수련회 때 동아리 홍보 시간을 확충하고 내년 3월에는 ‘동아리 홍보의 날’을 부활시켜 홍보강화를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양은 “동아리 활동을 위한 교비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양은 “동아리 테스트 발을 개최해 일정기간에 동아리들이 공연, 예연,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홍보하고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용인배움터 동원회장 박범준군



오는 05년 용인배움터 동아리연합회 회장에 박범준(정보통신공·컴공 09)군이 당선됐다. 박범준은 지지해준 동아리 학우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다. 박 군은 “학우들의 의견이 내년 동아리연합회(동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당선 소감을 대신했다.

현재 동원의 가장 큰 문제는 동아리들의 신입생 부족으로 인한 분위가 침체로 진전하고 있다는 박 군은 “내년에는 신입생 유치를 위한 동아리 박람회와 열여섯 동아리를 체결할 수 있는 장을 통해 해결책 생각”이라며 덧붙여 “올해 학생회장 리모넬이 1층과 지하로 한층 뻗었지만 내년에는 전체 학생회관을 리모넬로 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내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거문제를 하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받았다는 박 군은 “내년에는 동아리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행사를 기획해 더욱 준비하고 앞서 말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총학생회장 이윤미양



“개표 날 총학생회장이 그 어느 단체보다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는 총학생회장 당선자 이윤미(동유럽·폴란드 02)양은 “선거가 끝나면 출가분할 것이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선 이후 여제가 무거워졌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이 양은 “현재 총학생회장은 소수로 명맥을 유지해가는 실정이었다”를 해를 기점으로 여학생들을 위한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책은 △생리유고 결석제 △여학생 휴게실의 전면적인 리모넬 △총학생회장 내의 소모임-우리남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총학생회를 함께 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이 양은 “총학생회는 금남의 공동체가 아니다. 많은 학우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단체와 과에서 관심있는 학우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는 부부의 말로 마무리를 맺었다.

상대 학생회장 연효성군



“부족한 자를 받고 함께해준 선봉원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을 때마다 자에게 정말 큰 의지가 되었거든요.”

“행복한 파파라치”를 기치로 제 20대 상경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연효성(경영 02)군은 “한정소를 주신 학우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약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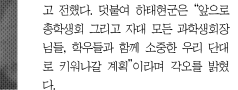
그는 “하나되는 상대를 위해 고학년과 저학년들을 묶는 튜터링 프로그램의 활성화, 학생회와 학과장실의 연계, 복학생들을 위한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학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회를 개회하는 등 공부하는 상대를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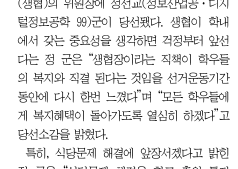


이번 11대 사범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서정경(03)군은 “이번 선거 무표를 받고 반대표도 전에 비해 많이 나와 이번 부분들을 민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는 서 군은 “강연회나 기호자 보를 통해 교원임용에 관한 부분이나 이의 바뀌어야 할 교육정책들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 군은 “지난 학회개원하는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의견수렴없이 4개과의 인원을 줄이고 년지 수요를 반영해 신설하겠다는 것은 안된다”며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교수수령과 학회의 개가 교육개혁을 잘 다지면서 이번 학회개원을 잘 마무리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용인배움터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장 정성교군



내년 용인배움터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생활)의 위원장에 정성교(정보통신공·디지털정보공학 09)군이 당선됐다. 생활이 학내에서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경망부터 앞선다는 정 군은 “생활협동조합은 직책이 학우들의 복지와 직결 된다는 것임을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느꼈다”며 “모든 학우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갔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특히, 식당문제 해결에 앞장섰다고 밝힌 정 군은 “식당문제 해결은 학교 측의 투자 없이 해결하기 힘들다”며 “식당직영화는 식당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며 총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 측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군은 “내년에는 많은 홍보를 통해 조합원을 늘리는 것도 목표”라며 “부생협장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과 더불어 좋은 성과도 보여 주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배움터

학 생						
구분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점심)
요일						
월 (6월)	소고기국밥 (₩1,500)	오분불고기밥 (₩1,500)	오뚜기국밥 (₩1,500)	순두부국밥 (₩1,300)	돈까스치킨볶음밥 (₩1,400)	간지국수 (₩1,000)
화 (7월)	불고기밥 (₩1,000)	참치회덮밥 (₩1,500)	마늘로부자찌 (₩1,600)	오징어바삭튀김 (₩1,400)	양념치킨볶음밥 (₩1,400)	우동 (₩1,000)
수 (9월)	코다리찜볶음 (₩1,500)	소고기모듬스테이크 (₩1,500)	닭불고기밥 (₩1,500)	양파 (₩2,000)	육개장 (₩1,500)	스파게티 (₩1,000)
목 (9월)	사물우거지국밥 (₩1,400)	낙지무구이덮밥 (₩1,600)	볶음밥볶음고기 (₩1,600)	설렁탕 (₩1,500)	오징어떡볶음볶음 (₩1,500)	짜장면 (₩1,000)
금 (10월)	두부말랑게 (₩1,300)	산채비빔밥 (₩1,400)	카레면카레밥 (₩1,600)	닭개장 (₩1,500)	참치김치찌개 (₩1,400)	떡국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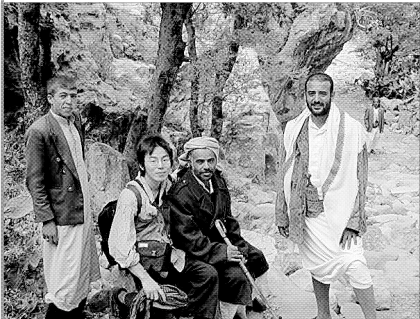
용인배움터

어 문 관						후 복 관	
구분	한식	정식	분식	한식정식	일품	일품	일품
요일							
월 (22일)	유자차해장국 (₩1,500)	왕통기스 (₩2,000)	주간동일	쌀밥/시금치해장국 (₩2,000)	설렁탕 (₩1,800)	돈까스 (₩2,000)	
화 (23일)	황태해장국/참치회 (₩1,500)	치킨/왕통기스 (₩2,000)	주간동일	쌀밥/계란우유국 (₩2,000)	카레라이스 (₩1,800)	계란말이 (₩2,000)	
수 (24일)	닭강정/닭강정 (₩1,500)	탕수육/닭강정 (₩2,000)	주간동일	강장죽/두부말랑게 (₩1,500)	비빔밥 (₩1,800)	치킨/계스 (₩2,000)	
목 (25일)	육개장/왕통기스 (₩1,500)	돈까스/계스 (₩2,000)	주간동일	쌀밥/미역국 (₩1,500)	왕통기스 (₩1,800)	오뚜기 (₩2,000)	
금 (26일)	세무두부/계스 (₩1,500)	오뚜기 (₩2,000)	주간동일	쌀밥/유부부 (₩1,500)	햄김치/왕통기스 (₩1,800)	햄스테이크 (₩2,000)	





▲ 호란날의 올드사나, 필자가 그린 그림이다.



▲ 예멘인들과 함께한 필자(가운데)

교원학생수가 ④ - 예멘 사나 손원호(동양·아랍 99)군

아름답지만 심심한 사나

2004년 12월, 벌써 예멘에 온 지 8개월이 지났다. 현재 나는 Sana'a Institute for Arabic Language라는 학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올드 사나'란 동네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난 세계문화 유산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학원을 다니는 모든 학생들 수는 대략 50명 정도. 대부분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다. 한국인 학생은 물론 나 하나다. 아니, 예멘 전체를 통틀어서 나 하나뿐이다.

이 곳에서 난 시계 알람을 맞춰 본 일이 없이 6시간 되면 일어나다. 밤 문화가 없는 이 곳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 날 수밖에 없다. 식사는 주로 건강을 위해 만든 맛있는 잡곡밥과 이 곳에 있는 한민족에 얻은 감자로 대충 끼니를 때운다. 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사나'란 곳은 고산 지대와 밤이 잘 안된다. 전기발송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 곳에서 필요한 건 전기발송이 아니라 양력 발송이다.

나는 집에서 나올 때 늘 가방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넣는다. 그림 그리기는 이 곳에서 생긴 취미이다.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던 난, 이 곳에서 다시 붓을 잡았다. 혼자 보기에 아까운 풍경들이 많은데 사진에는 다 그려들까지 있다. 데는 한계가 있다. 항상 도구를 갖고 다닌다. '인' '저더'! 싶은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린다.

집에서 나온 나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유일한 운동이다. 올드 사나를 벗어나려면 우리 동네의 골목골목을 다 지나야 한다. 그리고 예멘 고마들의 집으로 안부 인사에 일일이 다 답을 해주어야 한다.

예멘 고마들은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 하는 소리가 정해져 있다. '왓츠유어 크레인', '벨어브루프', 그리고 '이리브루'다. 하지만 이제 우리 동네 골목을 지나치면 모두들 내 이름을 부른다. 놀라운 건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이다. 모를 것이다. 매일 보면서 볼 때마다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묻는 동네 이웃들로부터 정이만 켜진다.

골목을 다 나오면 '올드 사나' 특유의 시장이 나온다. 마치 영화에 나올 듯한 곳이다. 전통 복장의 사람들이 봄비는 오래된 시장,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올드 사나의 그림 같은 집들이 반짝하고 있다. 시장에 나오면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그림 그릴만한 거리가 있다. 찾아보기도 한다. 그리고 아재가네냐 과일 가게에서 그 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산다. 주저없이. 특히 과일은 정말 싸다.

그렇게 이것저것 사고 돌아다니다가 학원으로 돌아오니 전 '사나 헬프' (헬프란 군것질거리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로아'와 '바글로'란 헬프를 먹는 다. 이 헬프는 주인 이저씨는 항상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 내가 먹은 것은 모두 40리얌, 하지만 사실 특별히 정해진 가격이 없다. 다만 나와 아저씨 사에서 정해진 가격이 40리얌(약 300원)이다.

학원으로 돌아와 수업 전, 친구들이나 학원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예멘 이야기, 언어에 관한 이야기, 세계의 정세 등등. 학원 벤치에서 선생님들과 혹은 다른 학생들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가끔 비무슬림 학생들과 무슬림 선생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일반적이다. 수업이 끝나고 저녁식사를 할 후 나는 동네 골목에 있는 자그마한 사집(차집)에 간다.

이곳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대화의 장을 이루는 곳이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나는 이 곳이 좋다. 사(차)를 한잔 시키고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애준다. 그러다 보면 동네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못 알아 들을까봐 방언을 표준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준다. 밤 11시만 되면 동네가 조용해진다. 대부분의 가게나 찻집도 11시 정도가 되면 문을 닫는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며 나는 '아름답지만 심심한 동네'라고 중얼거리며 잠을 청한다.

몇 달 전, SBS에서 '이리브루'의 숨은 진주'란 제목으로 예멘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고 들었다. 그때, 절절한 표현이다. 예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하지만 평생 살면서 놓치기에는 좀 아까운, 짝주머니 곳이다.

기고·국회의원 김애실 교수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 위해 노력할 터



존경하는 외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애실입니다.

어느덧 2004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정들었던 외대를 잠시 떠나 국회에 온 지도 7개월이나 됐지만 아직도 마음은 국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외대교정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로 온 후 메일을 통해 휴직인사를 드렸고 홈페이지를 통해 추직인사를 드렸습니만 이렇게 외대교보통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로 온 이후,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안과 증권거래법중개정안을 상정하였고 증권관련전산소송법중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이자, 여성과 실세한 감각과 풍부한 감성이 재발을 발하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저는 국회여성위원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 등을 위한 교육문화의 해결과 상생발전방안 통과 이후 제도적조각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 그리고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 등 양성평등문화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외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안락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글로벌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우리 외대가족이 중심을 잡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외대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담는 세상



작은·영남대학교

"연안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지난 3월(금) 성황리에주최한 주제로 진행된 '외대연안'을 향하는 참가자들이 일차미와 장미를 착용하고 모교으로 마련한 연탄을 모처럼 원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이버외국어대학교 2005학년도 신입/편입학, 산업체위탁생 모집안내

1. 모집 현황

계	영	영	영	영
계	영	영	영	영
외국어계열	영어학부	180	120	300
	중국어학부	108	72	180
	일본어학부	108	72	180
사회계열	경찰학부	60	40	100
	연료통보학부	60	40	100
계		588	344	892

나. 2005년 편입학

계	영	영	영	영
계	영	영	영	영
외국어계열	영어학부	60	120	60
	중국어학부	60	120	60
	일본어학부	40	70	40
사회계열	경찰학부	50	100	50
	연료통보학부	40	100	40
계		260	480	260

*일반전형 2차는 일반전형1차 모집인원이 비달할 경우 실시합니다.

다. 산업체위탁생

계	영	영	영	영
계	영	영	영	영
외국어계열	영어학부	60	120	60
	중국어학부	60	120	60
	일본어학부	40	70	40
사회계열	경찰학부	20	20	20
	연료통보학부	20	20	20
계		172	171	168

2. 전형 일정

- 가. 일반전형 신입/편입학
 - 일반전형1차: 2005. 12. 18(월) ~ 2005. 12. 22(수)
 - 일반전형2차: 2005. 1. 18(월) ~ 2005. 1. 22(수)
 - ※통제사에서 합격통지서 작성 및 제출 및 면접(2005년 2월)
- 나. 산업체위탁생 신입/편입학
 - 일반전형1차: 2005. 12. 18(월) ~ 2005. 1. 22(수)
 - ※통제사에서 합격통지서 작성 및 제출 및 면접(2005년 2월)

3. 등록금

- 수강신청 당 8만원 (학기별 최소 12학기 최대 24학기 수강가능)
- 가. 홈페이지: www.cedu.ac.kr
- 나. 입학상담: 02-7273-2558

사이버외국어대학교교무처

2004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공고

2004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 아 래 -

1. 시험기간: 2004. 12. 13(월) ~ 12. 17(금) ~ 5일간

2. 평가방법

- 가.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담당교수 개량으로 실시함.
- 나. 시험은 필답고사·과제물·수시평가 및 숙적물 등 종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 다. 교양과목(상용외국어 포함)은 상대평가를 적용함.

3. 추가시험

- 가. 대상자: 해당과목의 중간·기말시험을 모두 결한 자로서 유고 결한 경우에 한함.
- 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장소: 2004. 12. 15(수) ~ 12. 17(금) 해당 교과과
- 다. 추가시험 실시: 2004. 12. 20(월)
- 라. 추가시험 성적제한: B+이하 (학칙 제36조)

2004. 12.

서울캠퍼스교무처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36조(학칙의 개정) 및 제37조(학칙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공고합니다.

아 래

- 1. 개정사유: 일반대학 운영의 활성화를 본고 출신 우수학생의 대학원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학칙 제36조(학칙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공고합니다.

2. 학칙 개정(안)

현	개	비
제36조(학칙의 개정) ① 본 대학교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36조(학칙의 개정) ① 본 대학교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②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②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③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③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④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④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⑤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⑤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⑥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⑥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⑦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⑦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⑧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⑧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⑨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⑨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⑩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⑩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⑪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⑪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⑫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⑫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⑬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⑬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⑭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⑭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⑮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⑮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⑯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⑯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⑰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⑰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⑱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⑱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⑲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⑲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⑳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㉑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㉒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㉓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㉔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㉕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㉖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㉗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㉘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㉙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㉚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㉛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㉜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㉝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㉞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㉟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㊱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㊲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㊳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㊴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㊵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㊶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㊷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㊸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㊹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㊺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㊻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㊼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㊽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㊾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㊿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㊿ 제4항 중 학칙제36조, 제37조 제1항을 유동 통치에 대한 조항으로 개정한다.	학칙 제36조 3항 추가

3. 의견수렴

- 학칙 제36조(학칙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04. 12. 24(금) 17:00
- 제출처: 서울캠퍼스 교무처 학칙수정담당(4008)
- 제출방법: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인의 연락처(주소, 연락처, 성명)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2.

용인캠퍼스교무처

모현학사(기숙사)생 모집 안내

2005학년도 제1학기 모현학사(기숙사)의 남·녀 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 나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원서접수: 모현학사 학생신청 및 안내서
2. 접수기간: 2004. 12. 01(수) ~ 12. 17(금) 09:30~17:30
3. 접수처: 모현학사 학생신청 및 안내서
4. 선발인원: 모현학사(기숙사) 71석(남·여) 중 남·여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 나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선발기준:
 - 1) 학력: 고졸
 - 2) 학력: 고졸
 - 3) 학력: 고졸
 - 4) 학력: 고졸
 - 5) 학력: 고졸
 - 6) 학력: 고졸
 - 7) 학력: 고졸
 - 8) 학력: 고졸
 - 9) 학력: 고졸
 - 10) 학력: 고졸
 - 11) 학력: 고졸
 - 12) 학력: 고졸
 - 13) 학력: 고졸
 - 14) 학력: 고졸
 - 15) 학력: 고졸
 - 16) 학력: 고졸
 - 17) 학력: 고졸
 - 18) 학력: 고졸
 - 19) 학력: 고졸
 - 20) 학력: 고졸
 - 21) 학력: 고졸
 - 22) 학력: 고졸
 - 23) 학력: 고졸
 - 24) 학력: 고졸
 - 25) 학력: 고졸
 - 26) 학력: 고졸
 - 27) 학력: 고졸
 - 28) 학력: 고졸
 - 29) 학력: 고졸
 - 30) 학력: 고졸
 - 31) 학력: 고졸
 - 32) 학력: 고졸
 - 33) 학력: 고졸
 - 34) 학력: 고졸
 - 35) 학력: 고졸
 - 36) 학력: 고졸
 - 37) 학력: 고졸
 - 38) 학력: 고졸
 - 39) 학력: 고졸
 - 40) 학력: 고졸
 - 41) 학력: 고졸
 - 42) 학력: 고졸
 - 43) 학력: 고졸
 - 44) 학력: 고졸
 - 45) 학력: 고졸
 - 46) 학력: 고졸
 - 47) 학력: 고졸
 - 48) 학력: 고졸
 - 49) 학력: 고졸
 - 50) 학력: 고졸
 - 51) 학력: 고졸
 - 52) 학력: 고졸
 - 53) 학력: 고졸
 - 54) 학력: 고졸
 - 55) 학력: 고졸
 - 56) 학력: 고졸
 - 57) 학력: 고졸
 - 58) 학력: 고졸
 - 59) 학력: 고졸
 - 60) 학력: 고졸
 - 61) 학력: 고졸
 - 62) 학력: 고졸
 - 63) 학력: 고졸
 - 64) 학력: 고졸
 - 65) 학력: 고졸
 - 66) 학력: 고졸
 - 67) 학력: 고졸
 - 68) 학력: 고졸
 - 69) 학력: 고졸
 - 70) 학력: 고졸
 - 71) 학력: 고졸
6. 선발인원: 732명 중 368명 선발(남 194명, 여 172명)
7. 합격자발령: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2월초 우편으로 개별발령 합니다.
8. 부합한 방법(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합격자는 학칙 제36조(학칙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공고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칙제36조(학칙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공고합니다.

2004. 12.

모현학사